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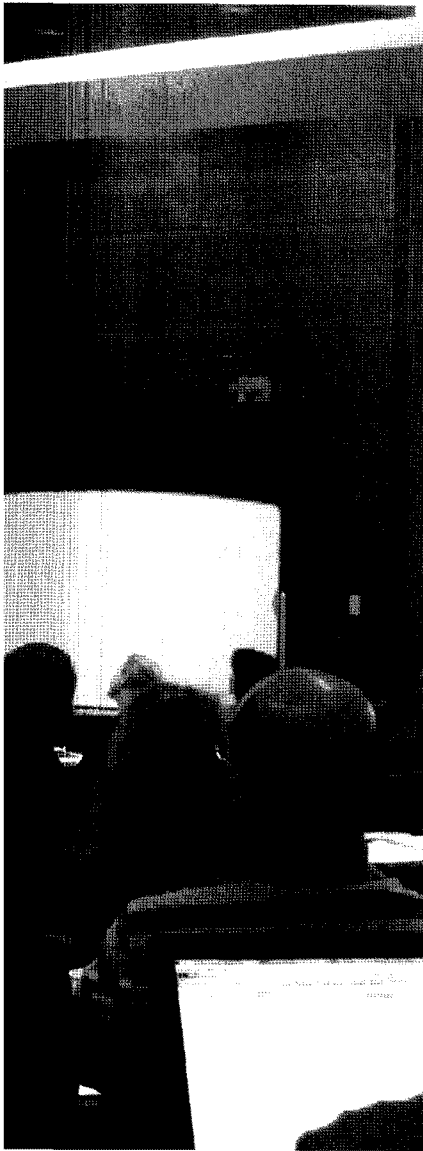


CASRIP에서 매년 열리는 Summit은 흥미로운 주제로 넘쳐난다. 패널들의 논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볼거리 가득하다

빌스키 허스키, 미국 CASRIP 연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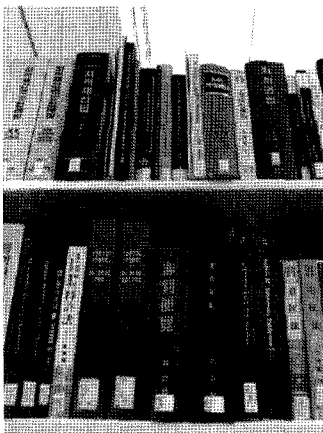
빌스키(Bilski)! 허스키(Husky)!

이번 연수에 참가하면서 '미국(United States)', '특허법(Patent Law)' 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접하고 사용한 단어가 아닐까 싶다. 소리 나는 대로야 '스키스키' 거리니 웬지 기분 나쁜 말을 듣



는 거 같기도 하고, 동네 아저씨 '빌스키씨'와 '허스키씨'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개(Dog) 품종 같기도 하니... 미국 내에서도 손꼽힌다는 워싱턴 주립대학교¹⁾(University of Washington)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교육 프로그램, CASRIP²⁾.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도 이 단어들에 새록새록 떠오르곤 한다. 빌스키(Bilski)라 하면 미국 특허계에서 항상 핫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판례이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을 수밖에 없었고, 허스키(Husky)라 하면 허스키종 개(Dog)로 워싱턴 주립대학의 상징³⁾이자 생명줄을 쥐고 있는 밥(Meal)카드의 이름이어서 '허스키 카드 챙겼어?', '허스키 카드 어디 있어?', '허스키 카드로 계산해.'가 일상 대화이니 이 두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지식재산권이라 하면 한국발명진흥회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한, 평생 공부하고 탐구해야 할 '과제' 라고나 할까? 업무 초기만 해도 '지식재산'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해서 말할 때마다 '지식재산 ~!' 번번이 새는 발음 때문에 '나 이 말 못하려나봐' 고민도 하고 특허 권리 존속기간도 헷갈리던 나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요즘 세상에서 더욱 강력해진 메가톤급 파워로, 나의 일과 삶을 장악해 버린 요 녀석이 이토록 무서운 존재감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단 말인가? 배워야 살고 배워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 말 자체에 '지식'과 '재산'이라는 숨막히게 부담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요 녀석을 어떻게 정복해야 한단 말인가? 특히, '국제'라는 팬시리 광(光)내야 할 것 같은 타이틀이 달린 업무를 담당하는 나로서는 항상 마음 한 켠에 '언어'와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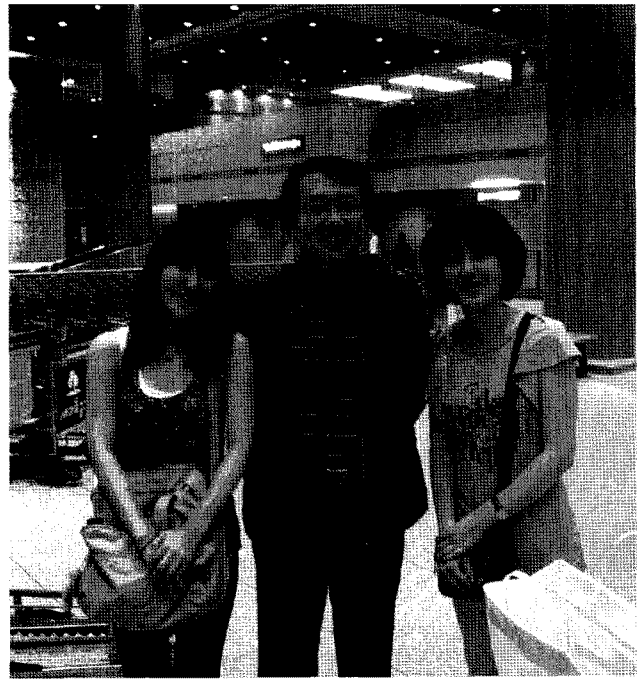


- 1) UW(University of Washington)로 줄여 표기, 미국 태평양 연안 북서부 워싱턴 주 시애틀에 위치한 주립대학교로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동상을 볼 수 있다. 미국 상위권 대학으로 항상 링크되는 유수 대학이며, 그 중 의학과 해양학의 명성이 높다고 한다.
- 2) CASRIP(Center for Advanced Study &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내에 설치된 지식재산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우수한 강사진과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상당히 높아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지식재산 교육기관이라고 한다.
- 3) 워싱턴 대학 기념품에 이 개의 그림이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 티셔츠를 입고 다녀 항상 허스키(Husky)라는 말이 노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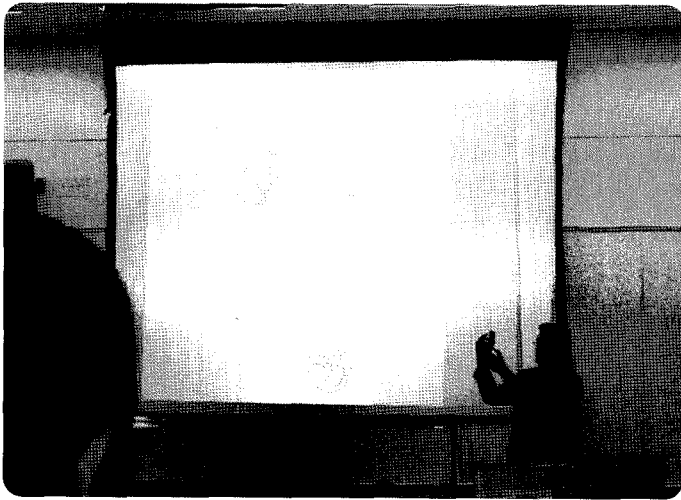
Column

미국 CASRIP 연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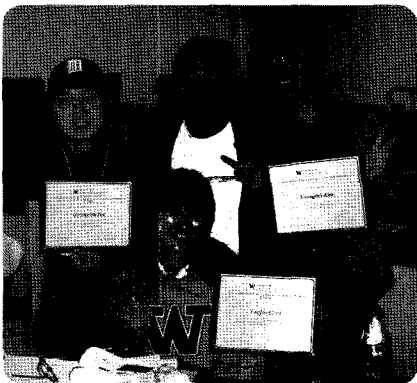
그러던 중, 회사에서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도전해 보자는 심정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시애틀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가만히 눈을 감아 보았다.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보내준 건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이에 반해 기대감도 컸다. '그래, 믿고 보내주셨잖아. 최선을 다하자!'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는 연수단! 오승택 부장님, 이해영 계장님과 함께



특허 출원서를 직접 보며 설명을 들으니 머리 속에 쑥쑥 들어온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으로 연수에 함께 참가했던 우리나라 대학원 학생들

CASRIP Summer Institute (정식명칭 : 2010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Summer Institute)는 미국 특허법을 교육하는 여름 단기 프로그램으로 본 수업 전에 지식재산 전문용어와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Pre-Conference Program (2일)과 미국특허법에서 말하는 특허성 성립요건, 특허 출원·등록 절차 (Prosecution)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Core Subjects (4일), 3개 분야(Track)로 나뉘어 관심 주제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여 심화된 강의가 이루어지는 Advanced Subjects (5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본적인 수업 외에도 참가자들을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지적권법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Teaching Assistant를 배정하여 매일 보충학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Core와 Advanced Sessions



나의 당돌한 질문을 받고 내심 당황했을 변호사

사이 주말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특허 공무원 및 업계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세계 특허시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핫 이슈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High Technology Protection Summit (2일)이 열렸다.

CASRIP Summer Institute 프로그램의 강점은 양질의 커리큘럼과 이를 받쳐주는 탄탄한 교수진이다.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물론 미국·유럽의 역량 있는 변호사, 판사, 특허청 공무원, 교수까지... 내로라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사전 강의-본 강의-주제별 심층 강의를 통해 미국특허법을 그야말로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니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쌓아올려진 것은 아니리라. 특히, 미국 헌법의 역사와 기초, 미국 법체계의 특징부터 시작하여 특허법이 생기게 된 배경을 배우니 재미가 있었다. 또 미국 지재권 용어를 먼저 배우고 본 강의에서 반복해서 그 용어들을 다루게 되니,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답답했는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개념이 명확해지고 결국에는 그 용어가 익숙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특허성 성립 요건을 곱할기식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찾아가면서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를 자세하게 배워나가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 그 법(Law) 조항이 실제로 적용(Practice)되는 과정을 들으니 더욱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었다.

이번 CASRIP Summer Institute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던 주제는 단연 '빌스키(Bilski) 케이스'였는데 이 케이스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특허성(Patentability)에 대한 미국 특허법조계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가장 최근에 판결된 케이스이자, 그 판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엄청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빌스키 케이스와 관련하여 이번 연수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①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기사들 중 일부가 오도가 아니었나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미국 현지에서 논의 되고 있는 내용과 상이했다는 점과 ② 이 케이스를 둘러싼 논점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과 법조계 유명인사, 미국 변리사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③ 실제로 판결을 내렸던 연방법원 판사를 직접 만나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였다. 특히, Summit에서는 이 케이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별도로 책정돼 있었는데, 1초에 백만 단어를 쏟아내는 것 같은 원어민 따발총 영어의 포스에 놀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하느라 애를 좀 먹긴 했지만, 미국 특허법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패널이나 청중들 중에는 빌스키 케이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연방법원 판사에게 아예 대놓고 자기 의견을 어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활발하게 논쟁하는 그들의 문화가 부럽기도 하고, 언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동양인의 핸디캡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교육’ 자체의 측면 외에도 수강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강점이 아닐까 싶다. CASRIP Summer Institute는 Social Activity라는 이름으로 교육 외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데 대부분은 유명 로펌과의 만남을 통한 인맥 형성 기회이다. 시애틀에 소재한 Woodcock Washburn, Seed IP Law Group, Dorsey & Shitney Law Firm, Fenwick & West Law Firm, Townsend and Townsend and Crew 등 로펌 관계자들과의 식사와 만남을 통해 참가자들 간, 참가자와 특허 업계 관계자들 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미드(미국 드라마)에 서나 봤을 법한 고층 빌딩과 최상의 근무 환경을 볼 수 있어 눈이 호강했던 것도 사실. 게다가 잘나가는 변호사, 판사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니 이게 웬 호사인가. 한 로펌에서는 미국 스포츠 문화의 상징! 야구경기⁴⁾ 티켓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CASRIP 측에서 특허청과 공공기관에서 온 수강생들에게 Microsoft 투어를 제공해 주었는데, CASRIP 측에서 별도로 섭외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보니 Microsoft 특허 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견학 이후, 언제부터인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함께였던 체코 판사님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수확 중의 하나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대륙법과 영미법의 문화적·제도적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해 빚어지는 특허법 상의 차이와 특징 등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영미법의 세계에 눈을 떴다고나 할까? 배심원제, Discovery⁵⁾, 연방체제로 인한 관할권 문제 등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왔지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미국법의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니 너무 재미있었다. Summit이 열렸을 때는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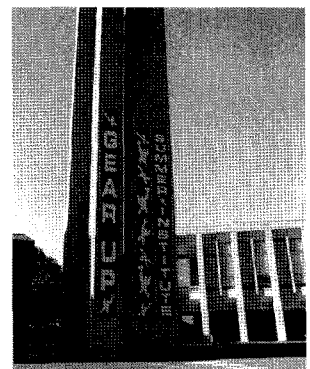
4) 시애틀 야구단의 이름은 마리너스(Mariner's), 일본인 이치로 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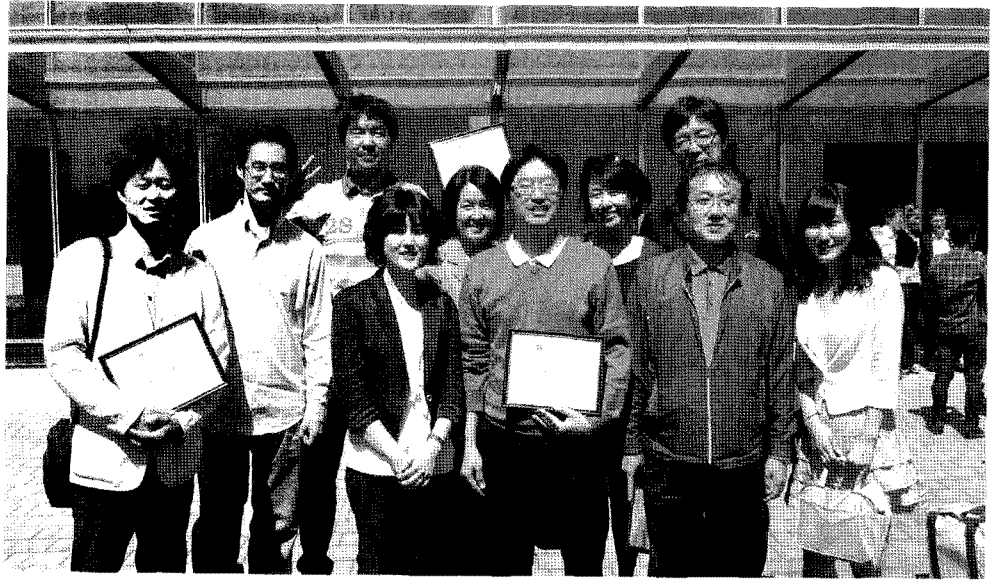
5) 미국은 소송 전에 케이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사실 관계를 조사 및 파악하는 Discovery라는 단계를 거친다. 이를 통해 피고측과 원고측이 서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해 모두들 고생했던 사진

미국법체계의 특이성에 대해 유럽 출신 패널들이 “우리는 Discovery가 없습니다. 왜 굳이 그런 걸 합니까?”라며 농담 섞인 말로 일침을 놓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에게 편잔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유럽밖에 없다고...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 재미있었다. 사실 무식한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나 또한 만찬 자리에서 한 변호사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아니~ 굳이 왜 Discovery를 합니까? 그리고 민사 사건은 모르겠는데 특허 사건에서 배심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배심원들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자 변호사는 미국인 특유의 제스처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흠, 글썽요. 우리는 그냥 결론이 딱 나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과정 즉, Fighting에 초점을 맞추죠.” 역시 변호사가 많은 나라,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하는 나라, 피고·원고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배심원을 설득하는 나라, 미국 답다! 그들의 그런 문화와 제도가 낯설기도 하고 소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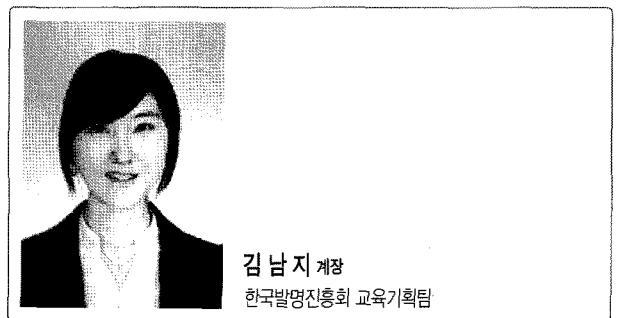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함께 참가했던 한국인들, 하이닉스 직원들과 변호사협회 지원으로 참석했던 변호사님들과 함께

CASRIP Summer Institute에 참가하면서 미국특허법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까지 맛본 기분이다. 특히 업계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 마음껏 어울릴 수 있었고, 기숙사 생활, 대학 수업 등을 통해 미국 캠퍼스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인생에 있어 보석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발명진흥회의 구성원으로 일하면서 항상 고민해왔던 것이 있다.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글로벌 한국발명진흥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나부터 어떻게 하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까?' 라는 물음. 이번 연수를 통해 어느 정도 이 물음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해답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확충되어 더 많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특히, 연수에 앞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학습효과도 높이고 대외적으로도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으로서의 역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이러한 해외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한국발명진흥회 직원들이 세계 지식재산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 남 지 계장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